

96.6.2

두번 우는 장애인어린이들

불편한 몸도 서러운데...곳곳에서 학교건립 반대

정문·밀알교등 공사 늦어져 타고 '더부살이 수업'

장애아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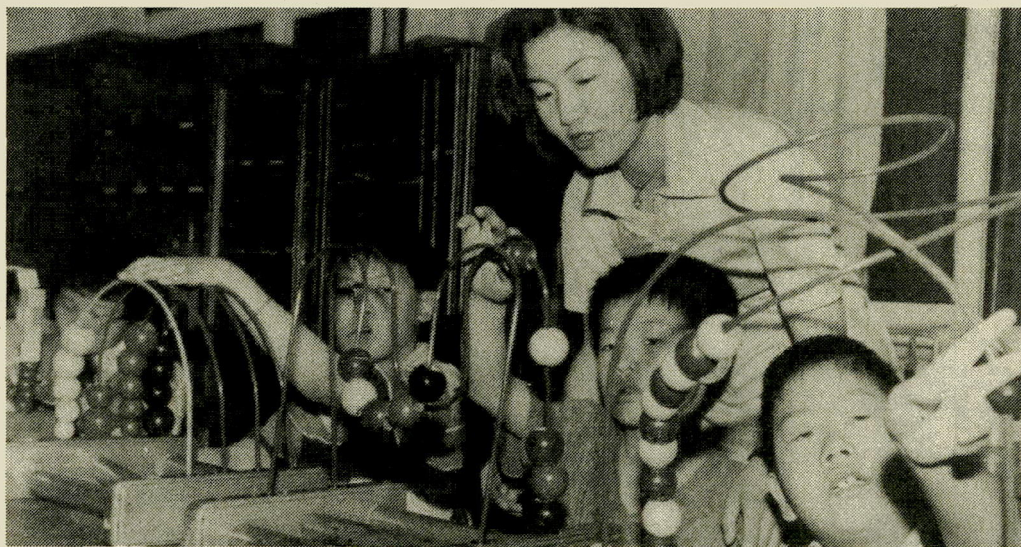
1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아 초·중등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12개 장애아학교의 건립에 나섰다. 주민반발 등에 부딪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전하는 난화초등학교(관악구 신림7동) 건물을 넘겨받아 올초 초 개교하려던 정문학교는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에 건물 보수공사가 중단되면서 개교가 기약없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애초 정문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던 6개 학급 90여명의 정신지체아는 구로구 공동 서울정진학교에 떠맡겨져 교실로 급조된 휴게실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받고있다. 지체아들은 특히 정진학교의 식당이 좁아 2~3개조로 나눠 점심을 먹는가 하면 기존의 정진학교 학생만을 태우기에도 부족한 버스 5대에 편승해 2~3시간씩 걸려 통학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진학교 박성래 교감은 "주민들이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동네 땅값이 떨어질까 봐 반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밀알학교 역시 계속된 주민들의 건축공사 방해로 개교가 미뤄지면서 올초



서울시내 특수학교설립계획

학 교	위 치	예정학급수	개교예정	현 황
정문학교	관악구 신림7동	26	96.3	주민반발로 공사중단
정민학교	노원구 하계동	26	96.3	96년6월 공고예정
밀알학교	강남구 일원동	15	96.3	주민반발 / 2월 공사재개
지애학교	강남구 삼성동	26	97.3	주민반발 / 설계비만 확보
해화학교	강북구 수유1동	26	97.3	주민반발 / 부지매입 난항
구남학교	광진구 구의동	26	97.3	96년7월 공고예정
정원학교	종로구 경운동	13	98.3	96년중 공고예정

이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던 3개 학급 30여명의 정서장애아가 송파구 장지동 한국국영학교에 맡겨졌다.

교실이 부족해진 한국국영학교는 공여지책으로 기존의 교실을 칸막이로 막아 두개로 늘렸고 학생들은 풍나물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박숙

경 간사는 "밀알학교의 경우 법원이 지난 2월말 '주민들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판결했는데도 주민들이 '주변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라는 명목으로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삼성동 지애학교, 수유동 해화학교

서울 구로구 공동의 정진학교는 다른 지역에서 떠밀려온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휴게실을 개조해 교실로 쓰고 있다. 사진은 교실로 개조된 휴게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4학년 학생들.

김종수 기자

등도 비슷한 사정으로 애초의 계획인 올해안 착공이 늦춰질 전망이다.

시교육청 문대식 의무교육계장은 "지금으로부터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묘책이 없다"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도 동등한 인간이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